



양정숙
무소속 국회의원

안녕하십니까?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입니다. 현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선언되었지만,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우리나라는 EU, 미국, 일본의 경우와 같이 태양에너지, 풍력에너지를 상용화 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되지 않습니다. 또 우뚝가사리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, 지열에너지 등을 쓰는 국가들도 많은데,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 바이오에너지를 효율화해서 상용화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

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인데, 안전성 때문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 및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된다면 SMR(소형 모듈형 원자로) 생산이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

또한 에너지전환 뿐만 아니라 일자리전환에 있어서 기존의 화석에너지, 원자력에너지에 사용되던 노동력을 SMR로 전환해서 일자리전환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MR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제도와 정책·법안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. SMR이 환경과 에너지 자립에서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**KMIF**